

메달 보다 빛난 우정 ... 이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



16일(한국시간) 밤 열린 리우올림픽 여자 육상 5000m 예선 경기에서 페어플레이, 선의의 경쟁 등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 장면이 감동을 주고 있다. 니키 햄블린(뉴질랜드)은 이날 결승선 약 2000m를 남겨놓고 넘어졌다. 바로 뒤에서 달리던 에비 디아고스티노(미국)도 햄블린에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다. 디아고스티노는 먼저 일어나 햄블린에게 “일어나. 여기 올림픽이야. 우리 완주해야지” 하며 독려했다. 얼마 뒤 햄블린도 고통을 참지 못하고 트랙에 주저앉은 디아고스티노의 곁에 서서 손을 내밀며 서로를 일으켜 세웠다. 완주한 햄블린은 결승선에 먼저 도착해 디아고스티노를 기다렸고, 디아고스티노가 결승선을 통과하자 부둥켜안고 기뻐했다. ▶관련기사 20면 /김지을기자 dok2000@연합뉴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대상지 광주시·국방부 “연말까지 결정”

주민·자치단체 설득 최대 과제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대상지가 연말까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상지 주민과 자치단체 설득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후보지들에 대한 적전선상 검토하고 있다. 애초 광주권 3곳과 전남지역 1곳이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이들 지역을 포함해 광주·전남 전역이 이전지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대상지는 올해 상반기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 등의 영향으로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오랜 현안인 만큼 시도 신속한 추진을 바라고, 국방부도 새로운 무기체계 운용 등의 이유로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전 대상지 검토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와 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협약에 따라 이전을 추진중이었다. 국방부와 광주시는 협약에서 국방부가 마련한 특별예산으로 방공포대 이전을 추진하고 이전지 선정, 이전 예정 자치단체와 주민 설득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 정상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립공원 사업비로 복원 계획 수립과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확보한 기본설계비 15억원도 같은 이유로 아직 쓰이지 않았다. 무등산 정상인 천왕봉 해발 1187m에는 공군 제 8989부대 예하 3포대가 1966년부터 주둔해 지역민의 이전 요구가 컸다. 시는 이전지가 확정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피시설인 군부대 이전을 놓고 대상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이전지 선정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쌀이는 쌀 ... 北쪽만 쳐다보는 농심

〈북한〉

소비 급감에 올해도 풍년 예고 ... 누적 재고 첫 200만 돌파 예상

“인도적 차원 북한에 쌀 지원 재개 등 특단의 대책 내놓아야”

올해 쌀 생산량이 크게 늘어 처음으로 누적 재고량이 2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쌀 소비량은 줄었지만 최근 3년간 풍년이 들어 ‘수급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에 따르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정부 양곡창고에는 6월 말 기준 쌀 175만t이 쌓여 있고 올해도 날씨가 좋아 풍년이 예상된다. 175만t은 우리 국민의 6개월치 소비량과 맞먹는 양이다.

특히 올해 별다른 비·태풍 피해가 없어 2014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째 쌀 생산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남지역 들녘에서는 나락이 피기 시작했는데 지난 해보다 작황이 좋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만약, 올해 생산된 쌀 중 소비가 되지 않은 재고가 25만t을 넘으면 처음으로 쌀 누적 재고가 200만t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에만 재고량은 37만5000t이었고, 지난 2014년 24만t에 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6만t의 쌀이 초과 공급됐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원인은 소비 감소가 생산량 감소를 앞질렀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2.1%씩 줄어든 데 반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7%씩 감소했다.

벼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생산되는 쌀의 양이 많은 품종이 보급된 것도 수급 불균형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다수확 품종 보급으로 10a(300평)당 평균 수확량은 5년 새 483kg에서 542kg으로 뛰었다. 국민은 쌀을 덜 먹는데 공급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쌀 재고가 쌓이다 보면 산지 쌀가격이 하락하고 쌀 재배 농민이 많은 전남지역의 피해가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쌀은 주식처럼 가격이 내리거나 하락이 예상된다면 ‘홍수 출하’가 이뤄진다. 재고가 많아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잉생산이 이뤄지면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산지 쌀

값은 14만189원(80kg 기준)으로 지난해 수확기(10~12월)에 견줘 6.7% 떨어졌다. 최근 5년 중 최저치다.

8~9월 쌀값은 올 가을 햇벼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풍년이 들 경우 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자칫 전년도 재고 쌀이 풀리면서 가격이 바닥을 쳤던 지난 2009년, 2010년의 쌀값 폭락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쌀 가공산업 경쟁력 확보와 쌀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관련 제도 마련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농협 한 관계자는 “최근 쌀 재고가 워낙 많다 보니 출혈경쟁이 심한데 올해 재고 물량마저 더해지면 농가의 피해는 더욱 클 것”이라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보냈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흥~여수해역 적조주의보

가두리양식장 주변 방제 작업

전남 남해안 연안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6일 오후 8시를 기해 장흥~여수해역(장흥군 노력도 종단~여수시 돌산도 동측 종단)에 적조 관심(적조생물출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조 예방 조사결과, 여수~장흥해역에선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이 1㎖당 2~9개체 출현했다.

적조 관심주의보는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10개체 이상/ml, 적조주의보는 100개체 이상/ml, 적조경보는 1000개체 이상/ml 출현하면 내려진다. 현재 해당 해역은 적조생물이 성장하기에 적합한 25.1도~30.6도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날 현재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해당 해역에 분포한 적조가 강한 바람을 타고 내의 측으로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적조발생해역도(2016년 8월 16일)



전남도는 여수와 장흥해역에 각각 적조화산과 관리선 등을 동원, 가두리 밀집 지역과 양식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황토 살포와 수류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또 적조에달한 배를 편성해 현장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예방활동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등 종합 분석한 적조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름 가뭄 전남 저수율 ‘비상’ ▶6면
그림편지 - 최재영의 ‘통영’ ▶18면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